



제65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9월 11일)

## ‘뚱뚱뚱뚱, 가야 대장간’ 과 어린이 전시

조혜진, 어린이박물관 18:00~18:30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뚱뚱뚱뚱, 가야 대장간’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식 전시입니다. 가야는 풍부한 철 생산과 수준 높은 철제품들로 소위 ‘철의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가야의 역사를 현재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철’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1부에서는 현재적 관점에서 철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 곁에 흔하게 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2부는 나아가 그러한 ‘철’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 그 철을 잘 다루었던 가야의 대장장이들과 제련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3부에서는 가야의 신화를 비롯한 다양한 역사를 알아 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시를 다 보고 나서 과거와 현재에도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철이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에필로그 공간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전시는 현재에서 과거, 그리고 미래로 마무리됩니다.

어린이들에게 역사전시나 박물관이 지루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의 나와 관련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주먹도끼나 신라금관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현재의 나와 나를 둘러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이 지금의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약 2천년 전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가야라는 나라가 어린이들의 지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이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의 형태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면서 내용을 알게 되고 그 과정이 하나의 즐거운 놀이가 되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어린이 전시는 참여자의 능동성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전시를 탐험하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즐거움과 유익함이 발생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 (8)

## 실경산수화의 창으로 본 서울

이재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서울은 조선의 수도 한양과 그 주변의 여러 명승을 품고 있습니다. 한양의 지리 조건은 풍수지리적 명당일 뿐 아니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다채로웠습니다. 북한산 연봉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북한산과 인왕산, 남산 봉우리를 따라 성곽이 들어섰습니다. 북한산 자락은 깊은 계곡을 품고 있어 도성으로부터 탐방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성의 남쪽 한강 일대에는 너른 강물을 조망할 수 있는 누정樓亭이 여럿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문인들이 남긴 「한도십영漢都十詠」과 정조正祖(재위 1776~1800)가 쓴 「국도팔영國都八詠」은 서울의 명승을 열 가지씩 꼽은 시문으로, 수도 한양의 산수미에 대한 당시 지배층의 애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조선전기부터 유행한 계획도契會圖 중에는 관아 뒤로 펼쳐진 북악산이나 계모임이 열렸던 한강가의 언덕과 정자를 묘사한 것이 많습니다. 화가들이 늘 가까이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풍광을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실경산수화의 발전에 한양의 풍광이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그림 가운데 세 점의 한양 실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윤겸 金允謙(1711~1775)의 <송파환도도松坡喚渡圖>는 잠실에서 송파나루의 배를 부르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송파나루는 오늘날 석촌호수로 남아있는 한강의 옛 본류를 건너 광주로 향하는 길목이었습니다. 화가는 있는 그대로의 담담한 장면을 수평으로 포착하고, 간략한 붓질과 수채화같은 엷은 색으로 한가로운 한강의 한 때를 표현했습니다. 이한철 李漢喆(1808~1880)이 홍선대원군 이하응 李昰應(1820~1898)의 별장을 그린 <석과정도石坡亭圖>(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소장)는 장대한 북한산 연봉을 배경에 그려넣어 한 시대를 이끌었던 홍선대원군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조중묵 趙重默이 그린 <인왕선영도仁旺先塋圖>는 주문자 박경빈 朴景彬의 부친 묘소와 그 주변 풍광을 그려넣은 연폭 병풍으로, 인왕산 서쪽 홍제동 일대의 경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조중묵은 “먼 산과 가까운 물, 하나의 언덕과 하나의 골짜기에서 나무와 꽃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그려달라”는 주문에 따라 실제 경치를 세세하고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그림 속 묘소를 인왕산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그림 속 산수의 아름다움과 함께 조선시대 사람들의 효심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 가야실 전시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 이해

옥재원, 107호 가야실 19:00~19:30

전시실에서 종종 전시품을 대하는 관람객의 태도를 주의 깊게 봅니다. 대체로 많은 분이 전시실에 ‘서둘러’ 들어와 전시품을 ‘빠르게’ 지나치는 편입니다. 이래서 가만있는 전시품과 마주보는 시간은 제법 짧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시품 한 점이 품은 이야기는 한 편을 넘는데, 이를 차분하게 담고 다른 전시품들과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가야실에는 복원된 가야무사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굳건하게 선 모습이 매력적인지, 이 앞에 머물거나 나란히 사진 찍는 관람객이 많은데, 대부분 몸의 자세에도 힘을 잔뜩 넣습니다. 멋지다는 반응은 무사의 모습을 지나 그가 걸친 갑옷과 들고 있는 칼까지 미칩니다. 안전한 갑옷을 입고 예리한 칼을 휘둘러보고 싶다는 소감도 자주 곁들입니다.



가야실 복원 가야무사상

혼자 이 앞에 설 때마다, 가야사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갑옷을 벗어도 좋을 평화를 떠올립니다. 아울러 경계심 없는 무사의 부드러운 눈빛과 유연한 자세를 상상합니다. 지금이야 저 칼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지만, 당시에 저 무사는 누구를 향해 칼끝을 겨냥하고 칼날로 그 몸을 뚫을까를 질문합니다. 무사에게 몸을 내준 사람들은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처지였을지를 의심합니다. 관람하는 양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시품은 넓고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증거라서, 적게 보더라도 제대로 탐구한다면 꽤 큰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관람이 필요합니다.

전시품을 외우는 관람객이 많아졌습니다. 공인역사시험의 영향이 적지 않은 듯하고, 시험을 풀어주는 전문가의 영향력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역사 연구자의 해석을 거친 이야기를 통해 과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해석에 편견이 있는데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과거를 거듭 오해하게 됩니다. 박물관의 전시품은 우리가 역사를 직접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관람객들께, 전시실을 ‘천천히’ 지나며 마음에 닿는 전시품에 머물러서 자신의 이야기 짓기를 권해봅니다.



##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10)

### 에트루리아의 복식

노회숙, 기획전시실 19:00~19:30

에트루리아인이 남긴 무덤 벽화, 석관, 유골함, 도기 등은 에트루리아 복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에트루리아의 남성과 여성은 튜닉tunic을 입고 테베나tebenna를 걸쳤습니다. 튜닉은 헐렁한 옷으로 초기에는 몸에 넉넉하게 맞는 형태였으나 후기에는 T자형의 드레스 형태가 되었습니다. 소매의 길이는 짧은 소매, 팔꿈치까지 오는 반소매, 팔목까지 오는 긴 소매 등 다양하게 채택하였습니다. 튜닉의 길이 역시 넓적다리, 무릎, 종아리, 발목 길이로 다양하다. 테베나는 튜닉 위에 걸치는 일종의 숄shawl로 트라베아trabea라고도 합니다. 입는 방법은 다양하였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원형과 타원형의 천을 반으로 접어서 그리스의 히마티온himation처럼 한 끝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다른 쪽은 오른쪽 팔 밑을 지나 등 뒤로 넘겨 왼쪽 가슴에 늘어뜨리거나 왼팔에 걸쳤습니다. 또한 앞가슴에 둥글게 늘어지도록 하고 양 끝을 등 뒤로 넘겨 늘어뜨려 입거나, 어깨와 팔을 지나 고리를 끼우듯이 앞쪽으로 다시 잡아 빼어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로인클로스, 페리조마, 롱 스커트, 블라우스, 오버 블라우스 등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테베나를 입은 남성들, 타르퀴니아, 표범의 무덤 (Tarquinia, Tomb of the Leopards)

에트루리아 사람들은 가죽 샌들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기원된 뽕죽 신발을 신었다. 투툴루스는 여성이 썼던 원뿔 모양 모자로 가죽이나 펠트로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고 활동적인 에트루리아의 복식은 그리스, 이집트, 소아시아 등 여러 나라의 복식의 혼합 양식을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의 드레이퍼리 의상, 이집트의 주름 장식, 소아시아의 화려한 선 장식 등이 에트루리아의 복식에 보입니다. 에트루리아는 복식 제작기술이 뛰어났으며 무덤 벽화에서 보이는 투명한 옷감은 직조 방법이 발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에트루리아의 복식은 로마의 복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